

# 풍수 비보의 측면에서 본 '서울숲'

천인호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풍수지리학 전공  
cih@dongbang.ac.kr

- I. 서론
- II. 풍수비보의 이론적 검토와 비보숲
- III. '서울숲' 일대의 풍수적 해석
- IV. 풍수비보로 본 '서울숲'
- V. 결론 및 시사점

## I. 서론

본 연구는 현대의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조성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이 풍수적 관점에서는 비보숲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다. 풍수는 장풍(藏風)과 득수(得水)가 온전한 땅을 얻는 상지기술(相地技術)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전한 땅이 많지 않은 까닭에 땅의 결점을 보완하여 이용하는 것이 풍수비보이다. 즉 땅의 약점이나 결점을 보완·보충하는 방법과 지나치게 강한 기운을 눌러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자를 비보(禪補), 후자를 압승(壓勝) 또는 염승(厭勝)이라고 한다. 중국풍수는 이론이 체계화되어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만 잘 받아들이면 현장 적용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국풍수는 풍토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땅의 이치인데다 그것마저도 음양론, 오행론, 주역적 사고 등에 켜어 맞춰놓은 것<sup>1)</sup>이라 풍토가 다른 우리 땅에는 전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 땅의 다양한 실정에 맞추어 약한 곳을 북돋우고 강한 곳은 눌러주는 풍수비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비보는 풍수고전서에는 비교적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전통도시나 마을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원석은 풍수비보는 역사적으로 한국풍수의 구성체계에서 택지론과 더불어 양대 축을 이루며 마땅히 한국풍수의 이론적 구성요소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비보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주로 사찰, 탑, 연못, 숲, 조산(造山) 등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사찰과 탑이 국역풍수나 왕실의 비보형태로 나타났으며, 조선시대에는 연못, 숲, 조산 등의 비보형태가 나타났다. 이 중 숲이나 조산의 비보는 적은 비용으로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자연에 대한 훼손이 적었기 때문에 중소도시나 마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비보숲은 한국적인 전통입지관으로 볼 때 시야가 트여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공간을 위요(圍繞)시켜 마을 안과 밖을 구분시키고 이를 통해 생기의 누설 방지, 수구(水口)의 보완,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정성 보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위적

1) 최창조, 『한국의 자생풍수』(민음사, 1997), 41쪽.

2) 최원석, 「한국의 비보풍수에 관한 시론」, 『탐라문화』 22호(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2), 236쪽.

으로 조성된 숲으로 이를 통해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한 것이다.

풍수비보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전통사찰과 전통숲, 못 등을 풍수비보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먼저 송화섭은 전라북도 순창지역의 입석(立石)을 비보의 측면에서 해석하였고,<sup>3)</sup> 김현옥·김두규·김용기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졌던 국역조경으로서의 비보풍수의 유형과 원인을 규명하였다.<sup>4)</sup> 최원석은 비보풍수의 연원과 유형을 분석하였으며,<sup>5)</sup> 김의숙은 비보풍수의 유형을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sup>6)</sup> 그리고 권선정은 경관론적 측면에서 풍수비보를 설명하였으며,<sup>7)</sup> 한기문은 비보사지(裨補寺社)를 국가비보소라는 관점에서 국가지배 이념의 실현과 국가적 존재이념으로 분석하였다.<sup>8)</sup> 장동수는 전통숲 및 비보숲에 대해서는 전통숲이 가지는 풍수비보적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고,<sup>9)</sup> 장동수의 또 다른 연구는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약 1,000개소의 마을 숲 또는 전통도시숲이 잔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풍수지리적 조성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sup>10)</sup> 그리고 송화섭은 고려시대 국도풍수에서 조선시대 읍치풍수와 마을풍수까지 내려온 과정 속에서 수구막이 숲이 태동하는 시점을 밝혔으며,<sup>11)</sup> 장병관·황보철은 비보숲과 비모못에 대한 환경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sup>12)</sup> 현재까지 풍수비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리학,

- 
- 3) 송화섭, 「풍수비보입석과 불교신앙 - 순창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17집(한국사상사학회, 2001).
  - 4) 김현옥·김두규·김용기,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한양의 비보풍수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0권 3호(한국정원학회, 2002).
  - 5) 최원석, 「한국의 비보풍수론」, 『대한지리학회지』 37권 2호(대한지리학회, 2002).
  - 6) 김의숙, 「비보풍수연구」, 『강원민속학』 17집(강원도민속학회, 2003).
  - 7) 권선정, 「비보풍수와 민간신앙 - 금산의 돌담 경관을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37권 4호(한국지리학회, 2003).
  - 8) 한기문, 「고려시대 비보사지의 성립과 운용」, 『한국중세사연구』 21호(한국중세사학회, 2006).
  - 9) Dong-Su Jang, "Feng Shui Meanings and Roles of Korean Traditional Urban Forest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2003).
  - 10) 장동수, 「풍수지리적 배경의 전통숲 조성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제33집(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 11) 송화섭, 「마을숲의 역사와 상징 - 수구막이숲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권 2호(한국전통조경학회, 2008).
  - 12) 장병관·황보철, 「웃골마을 비보경관의 환경생태적 의미」, 『한국조경학회지』 36권 2호(한국조경학회, 2008).

국문학, 민속학, 경관생태학, 역사학, 부동산학, 조경학, 건축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연구성과도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전통마을이나 전통입지, 마을숲 등을 연구대상으로 각 학문영역으로 해석함으로써 풍수의 현대학문으로서 가능성과 타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서울숲은 풍수지리적으로 조성된 숲이 아니라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조성된 인위적인 숲이다. 논리의 증명은 크게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연역적 방법의 특성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참일 수밖에 없는 추리로서 진리보존적이나, 귀납의 특성은 결론이 전제로부터 만들어지므로 확장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귀납은 존재명제로부터 보편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이다.<sup>13)</sup> 따라서 본 연구는 귀납적 방법을 도입하여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조성된 서울숲(존재명제)이 풍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풍수비보의 역할(보편명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풍수비보의 이론과 비보숲의 기능과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 III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지인 서울숲 일대에 대한 풍수적 해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IV장에서는 풍수비보숲으로서의 서울숲의 역할과 기능을 전통마을의 그것과 비교하여 논증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도시개발, 도시조경 및 주거단지의 조성 등에 비보숲의 조성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 II. 풍수비보의 이론적 검토와 비보숲

### 1. 풍수비보의 이론적 검토

한국에서의 풍수비보는 신라 말 도선국사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4)</sup> 비보의 성립근거는 철학적으로 자연과 인간(혹은 문화)의 상보원리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문화생태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13) 우정규, 「귀납논리의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 『철학연구』 13권 1호(고려대 철학연구소, 1989), 133쪽.

14) 이에 대해서는 서윤길, 「도선비보사상의 연원」, 『도선국사』(불교영상, 1997)를 참조.

응(cultural adaption)으로서 조화를 증대시키기 위한 반응(reaction)이다.<sup>15)</sup> 풍수비보는 자연가치를 중시하는 풍수적 전통과 자연보합적 인문가치를 강조하는 비보적 전통이 상보적(相補的)으로 결합하여 재구성된 일종의 문화융합으로서 완결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환경의 구성을 지향한다.<sup>16)</sup> 따라서 윤흥기는 비보란 자연환경에 부족함이 있을 때 인위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풍수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연을 변형시키고, 지형을 보수하고 풍수를 개량하는 형태라고 하였다.<sup>17)</sup>

풍수경전에서 비보와 관련한 내용으로서는 먼저 풍수 최고(最古)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오경(靑烏經)』에는 “나무와 풀이 울창 무성하고 길한 기운이 서로 따르는데 이러한 내외와 표리는 혹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인위적인 것일 수도 있다<sup>18)</sup>고 하였는데 이는 좌우산과 안산, 조대산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자연적인 산수와 아울러 인위적인 산수도 인정함으로써 비보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금낭경(錦囊經)』에서는 혈에는 삼길(三吉)이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는 추길피흉(趨吉避凶), 둘째는 음양조화와 오토사비(五土四備),<sup>19)</sup> 셋째가 비보의 개념이다. 비보의 개념으로서는 “눈으로 잘 살피고 인공(人工)의 방법으로 터를 잘 구비하여 완전함을 좇아서 결함됨을 피하라. 높은 곳은 부드럽게 하고 낮은 곳은 돋우는 것이 삼길(三吉)이다”<sup>20)</sup>라고 하였다. 즉 명당혈이란 추길피흉과 음양중화된 기운과 오토가 잘 구비된 지역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곤란하다면 비보의 개념으로도 명당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설심부(雪心賦)』에서도 인위적인 비보 역시 흉함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흙에 남는 것이 있어 마땅히 파내야 하면 파내고, 산이 부족함이 있어 마땅히 보충해야 하면 보충한다”<sup>21)</sup>고 하였는데

15) Norton William, 150쪽, 최원석, 앞의 논문, 212쪽 재인용.

16) 위의 논문, 167쪽.

17) Yoon, Hong-Key, “Geomantic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 Korea”, *Asian Folklore and Social Life Monographs*, No 88(1976), p. 3.

18) 「草木鬱茂 吉氣相隨 內外表裏 或然或爲」, 최창조 역주, 『청오경·금낭경』(민음사, 1992), 34쪽.

19) 오토(五土)는 청, 적, 황, 백, 흑의 다섯 가지 색을 띠고 있는 흙을 의미하며 사비(四備)는 혈 주위 사방의 현무, 주작, 청룡, 백호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目力之巧 工力之具 趨全避闕 增高益下 三吉也」, 최창조 역주, 앞의 책, 158쪽.

이는 강하거나 넘치는 부분은 적절하게 제어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것으로 『청오경』과 『금남경』의 비보개념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헌상 최초의 비보는 고려시대 산천비보도감(山川裨補都監)을 설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고려사절요』에는 “최충헌이 재(宰)·추(樞)와 중방(重房)과 술사(術士)를 모아 국내의 산천을 비보하여 국기(國基)를 연장시키는 일을 의논하여, 드디어 산천비보도감을 설치하였다”<sup>22)</sup>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려사』에서는 “신종 원년에 재추(宰樞)와 중방(重房)의 관원들과 최충헌이 술객들을 모아서 국내 산천의 도움(裨補)으로 나라의 운명을 길이 연장시킬 문제를 토의하게 하였고 드디어 도감을 설치하였다”<sup>23)</sup>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고려시대 비보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은 국가 안위의 도모를 산천의 도움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역풍수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비보란 땅의 허결한 기운을 보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풍수 비보 중 비보숲의 조성은 조선시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나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세종 30년 음양학 훈도 전수온은 “국도(國都)인 한양은 나성(羅星)이 공결(空缺)되고 수구(水口)가 관활(寬闊)하게 되어 나성과 수구를 보충하기 위해 흙을 쌓아서 산을 만들어 보결(補缺)하고,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한다면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sup>24)</sup>고 하였다. 이는 신라가 천년을 지속한 것은 풍수의 비보책을 통해 허결한 기운을 보완했다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왕업의 지속성을 위해 수구막이로서 조산과 비보숲의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문종 1년에도 “경복궁은 백호인 인왕산이 높고 험준한 반면, 청룡인 낙산은 낮고 미약하므로 북쪽 산의 내려온 맥에 소나무를 심어 길렀는데, 벌레가 먹어 소나무가 말라 죽고, 집을 짓기도 한 까닭에 청룡이 날로 쇠약해지니 표(標)를 세워서 한계를 정하고 소나무를 심어서 산맥을 비보하게 하였다.”<sup>25)</sup> 이는 한양풍수의 가장 큰 문제점인 청룡의 허결함을

21) 「土有餘當闢則闢 山不足當培則培」, 김두규, 『풍수학대사전』(비봉출판사, 2005), 24쪽 재인용.

22) 『고려사절요』 제14권 신종 정효대왕 무오 원년(1198년).

23) 『고려사』, 제77권 지제31 백관2 제사도감과 각색.

24) 『世宗實錄』 30년(1448년) 3월 8일. 이하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번역본 (<http://sillok.history.go.kr>)을 이용하였다.

매꾸기 위해 소나무를 심어 산맥을 비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성종 3년에도 “백성이 산과 들에 불을 놓아 원릉(園陵)과 태실(胎室)이 연소(延燒)될까 두려우며, 여러 고을에서 비보하는 산림(林藪)의 성장한 소나무까지 모두 타버릴 염려가 있으니 엄격히 금단하고,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할 것을 두루 마을에 효유하여 주지하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라”<sup>26)</sup>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비보숲이 다양한 측면에서 설치되고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조 16년(1792)에 편찬된 『목민대방』에 의하면 “임수(林藪)는 고을의 울타리이므로 주산과 안산 그리고 수구에 수풀을 배양하고 지키는 사람을 두어 땔나무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조선시대 읍지의 임수 조에는 각 읍과 동리에 조성되어 취락을 둘러싸고 터전을 지키거나 비보한다고 하고 금령으로 보호한다”<sup>27)</sup>라고 하여, 비보숲의 기능과 아울러 비보숲 자체가 보호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비보숲의 유형과 기능

최원석은 풍수 비보를 구분할 때 기능상으로는 용맥비보, 장풍비보, 득수비보, 형국비보, 흉상차폐(凶相遮蔽), 화기방어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비보의 형태를 사탑(절, 불상, 탑, 당간 등), 조형물(장생표, 선돌, 솟대, 장승, 남근석, 돌거북, 돌자라 등), 조산(흙무지, 돌무지, 나무 등), 숲(조산숲, 비보숲 등), 못, 지명 및 놀이로 구분하였다.<sup>28)</sup> 김의숙은 비보풍수의 유형을 7가지로 구분하고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비보가 한국적 자생풍수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비보풍수의 유형을 지명변경형(땅의 명칭을 바꾸는 행위), 지형변경형(땅의 형태를 변형하는 행위), 수계변경형(물의 흐름을 바꾸는 행위), 보완장치형(유형의 보조장치나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행위형(기운을 보완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 사찰건립형(사찰을 건립하는 행위), 안산설정형(입지의 앞산을 조성하는 행위)으로 나누었다.<sup>29)</sup> 따라서 비보숲은 최원석의 분류에 의하면 기능상

25) 『文宗實錄』 1년(1451년) 4월 18일.

26) 『成宗實錄』 3년(1472년) 2월 23일.

27) 박봉우, 「마을숲과 문화」, 『한국학논집』 33권(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202쪽.

28) 최원석, 앞의 논문, 161-176쪽.

29) 김의숙, 앞의 논문, 103-144쪽.

으로는 용맥비보, 장풍비보, 형국비보, 흉상차폐의 기능을 하며, 형태로는 숲을 통한 비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김의숙의 분류에 의하면 보완장치형, 행위형, 안산설정형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장동수는 전통숲의 유형을 구분하여 비보숲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주맥구간 전통숲은 진산(鎭山)의 지기(地氣)가 주맥을 통해 주거지로 잘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며, 수구막이 전통숲은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의 허(虛)함을 막기 위한 것이고, 조산전통숲은 수구의 허함을 막기 위해 조산을 만들고 거기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지전통숲은 득수를 위해 인위적인 연못을 설치하고 그 주위를 숲으로 조성하는 것이며, 제방전통숲은 하천제방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방 위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며, 기타유형의 전통숲은 풍수의 형국에 따라 숲을 조성하는 것이다.<sup>30)</sup> 그리고 송화섭은 고려시대 이후 군현, 취락을 조성하면서 읍치풍수와 마을풍수에서 숲과 연못을 조성한 것은 전통적인 조정방식으로 전통마을 조성에서 마을 입구에 숲과 연못을 조성하고 그 안쪽에 성읍, 촌락을 조성하는 방식은 불교의 택지법이 비보풍수와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sup>31)</sup>

비보숲의 문헌적 명칭은 비보수(裨補葺)이며 지방에 따라서는 숲맥이, 숲쟁이, 수대(樹帶) 등으로 불리고 있다, 비보숲은 성격상 조산숲과 풍수숲으로 나뉘고, 구역상 고을숲과 마을숲으로 구분된다. 비보숲은 조산의 일반적인 기능인 장풍, 보허(補虛)와 수구막이 외에도 지기배양, 용맥비보, 수해방지, 흉상차폐 등의 기능을 발휘한다. 보허기능의 숲 중에는 특히 산곡분지의 보허기능은 수구막이 숲으로 일반화되었는데 숲을 이용한 비보는 기능상 경제적이고 실용적이어서 취락의 비보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sup>32)</sup>

비보의 수단으로서 숲을 조성하게 되면 다른 방법보다 조성이 쉽고 일단 조성되면 계속 성장하여 비보 효과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숲의 조성이 풍수적으로 볼 때 수구막이로 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주거지의 대부분은 후면과 좌, 우가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입지하는데 이 경우 전면에는 물이 빠져나가 개방된 공간이 형성된다. 풍수의 차원에서

30) 장동수, 앞의 논문, 54쪽.

31) 송화섭, 앞의 논문, 94-95쪽.

32) 장병관·황보철, 앞의 논문, 36쪽.



는 이 수구를 관쇄되지 않으면 지기가 빠져 나간다고 보아 수구에 인위적인 숲을 형성하는 비보를 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송화섭은 수구막이숲은 조산기능을 하며, 마을 앞쪽 수구가 공허하여 마을의 지기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풍수적 장치물로서 불완전한 마을 공간을 완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살기 좋은 이상향의 공간, 즉 마을의 우주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sup>33)</sup>

이상과 같이 비보숲은 장풍보호, 흉상차폐, 용맥보호 및 지기배양 등의 풍수적 기능과 아울러 현대적 의미로는 대기를 정화하고 녹음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휴양기능, 방풍기능, 미기후조절기능과 아울러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식재한 나무의 성장시간이 비교적 길어 돌탑과 같은 비보호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결점도 있다. 그러나 비보숲은 다른 비보수단이 가지는 상징성과 신앙성과는 달리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비보가 가능하며 방풍, 보온, 홍수방지, 휴양소 역할을 겸하는 다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비보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고지도와 비보숲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한 비보숲의 유형과 기능은 <표1>과 같다.

표1-비보숲의 유형과 기능

종류	기능	사례 및 근거
수구막이숲	마을 수구의 끝부분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생기의 누설을 방지	세종실록 30년 3월 8일(전수운의 한양수구 관련 기사) 전주 진북동의 숲정이(김두규·정기호) 충남 청안현의 비보숲(규장각) 전남 광양현 읍치의 비보숲(규장각) 전남 순천 낙안읍성의 비보숲(규장각) 전북 진안군 가림리 사인동 숲(박재철) 전북 진안군 부귀면 두암리 숲(박재철) 강원 원주시 산현리 송정(남연화·윤영할) 충북 영동군 화산리 절곡리 마을숲(충북개발연구원)
조산숲	인위적인 조산을 설치하고 숲 조성	문종실록 2년 3월 3일(동대문 조산과 관련한 문맹검의 상소) 충북 영동군 양강면 남전리 조산숲(충북개발연구원)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조산대미(충북개발연구원)
주맥보호숲	사신사에서 허결한 맥을 보완	문종실록 1년 4월 8일(한양의 청룡인 낙산 비보 관련 기사) 강원 원주시 산림면 성남 2리 마을숲(최재웅·김동업) 전남 해남시 현산면 덕흥리 마을숲(최재웅·김동업)

33) 송화섭, 앞의 논문, 93쪽.

표1-계속

주백보호숲	사신사에서 허결한 맥을 보완	전북 장수군 양신 마을숲(최재웅·김동엽) 경북 의성군 단촌면 새재골 마을숲(최재웅·김동엽)
형국비보숲	풍수 형국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	경남 밀양 울림(밀양문화원) 전북 부안군 통용리 비녀등 숲(김학범·장동수·박복조) 전남 임실군 방수리 숲(김학범·장동수) 강원 원주시 호전면 개전동 숲(남연화·윤영할)
홍상차폐숲	마을에서 볼 때 불길한 모양을 숲을 통해 차단	전북 진안군 은천 마을숲(진안군) 전북 진안군 상전면 구룡리 금당 마을숲(박재철 외 3인)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마을숲(충북개발연구원)
수해방지숲	하천의 공격사면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를 통해 수해방지	전주 한벽교와 전주교 사이의 버드나무숲(김두규·정기호) 경남 밀양의 장림(밀양문화원) 충남 홍주현 동문 앞 비보숲(규장각) 전남 광양현 읍치의 비보숲(규장각) 강원 원주시 후리사숲(남연화·윤영할) 충북 제천시 모산동 솔밭공원(충북발전연구원)
방위보완숲	마을의 특정 방향이 허결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숲	전북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능길마을숲(박재철 외 3인)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송림(임재해) 경남 하동군 하동읍 송림(하동군청)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 『1872년 지방지도』  
 김두규·정기호, 「후백제 도읍지 전주의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권 3호 한국전통조경학회(2004)  
 진안군, 『진안 마을숲 복원 매뉴얼』(2005)  
 김학범·장동수·박복조, 「전통 마을숲 복원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권 2호, 한국전통조경학회(2008)  
 김학범·장동수, 『마을숲』(열화당, 1994)  
 박재철·김병섭·윤성미·박신미, 「마을숲 복원에 관한 연구 - 전북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능길마을을 사례로」, 『농촌계획』 10권 3호, 한국농촌계획학회(2004)  
 박재철, 「진안지역 마을 숲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5권 1호, 한국농촌계획학회(1999)  
 남연화·윤영할, 「전통 마을숲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원학회지』 17권 1호, 한국정원학회(1999)  
 최재웅·김동엽, 「마을숲 문화가 있는 농촌 마을숲의 구조 및 보전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권 3호, 한국정원학회(2000)  
 충북발전연구원, 『충북지역 마을숲 관리 실태와 활용방안』(2008)  
 임재해, 『안동하회마을』(대원사, 1992)  
 하동군청(<http://www.hadong.go.kr>)  
 밀양문화원(<http://miryang.kccf.or.kr>)

### III. ‘서울숲’ 일대의 풍수적 해석

서울숲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85번지 일대에 조성된 인위적

인 숲으로서 총 면적은 115만 5천m<sup>2</sup>이며, 2003년 1월 서울특별시에 의해 조성방침이 수립된 후 2003년 12월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05년 6월 개원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자연생태숲, 습지생태원, 수변공원 등이 있다.<sup>34)</sup> 서울숲이 위치한 뚝섬은 과거 동교(東郊), 독섬, 독섬, 전관평(箭串坪), 살곶이 등으로 불렸다. 조선 태조 때부터 왕실의 사냥터였던 곳으로 국왕의 행차시에 그것을 알리는 대장군의 기인 독기(纛旗)를 세웠다는 사실과 중랑천과 한강이 합류하면서 지형의 형태가 마치 섬 모양 같다고 하여 독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뚝섬과 장안평은 조선시대 한성부와 양주목의 접경지역이었다. 한성부는 도성에 둘러싸인 도회지역과 성 바깥 10여 리에 이르는 소위 '성저십리(城底十里)'를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전통지리관에 입각할 때 도리기준점(道里基準點)이었던 4대문으로부터 사방 50리 이내의 지역은 근교, 그로부터 100리까지는 원교라고 하였으며 성저십리 바깥의 지역은 일괄적으로 교외라 칭하였다.<sup>35)</sup>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성저십리의 동쪽은 양주 송계원 및 대현에 이르고, 서쪽은 양화도 및 고양 덕수원에 이르고, 남쪽은 한강 및 노량진에 이른다”<sup>36)</sup>고 되어 있다.

그림1-서울숲의 풍수판단



(A) 서울숲의 위치(고지도)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 『대동방여전도』



(B) 서울숲의 위치(위성지도)  
자료: 네이버 위성지도

34) 서울숲(<http://parks.seoul.go.kr/seoulforest>).  
35) 홍금수, 「전관평의 경관변화」, 『문화역사지리』 18권 1호(문화역사지리학회, 2006), 108쪽.  
36) 「城底十里 東至楊州松溪院及大峴, 西至楊花渡及高陽德水院, 南至漢江及露渡」, 『세종실록지리지』, 京都漢城府.

이 일대의 풍수구조는 양기(陽基) 풍수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체로 양기풍수의 판단은 사신사(四神砂)의 구조로서 장풍(藏風)과 물의 흐름에 따른 득수(得水)을 파악하여 판단하게 된다. 사신사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 동북부 일대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림1>에서 보듯이 주산은 삼각산에서 내려온 맥이 초안산, 천장산, 배봉산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백호는 삼각산에서 북악산, 인왕산을 따라 남산까지 내려온 맥으로, 청룡은 수락산에서 불암산을 거쳐 아차산에 이르는 맥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이 지역의 구조는 풍수적으로 이상적이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주산의 맥이 명확하지 않고 『감룡경(撼龍經)』에서 혈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인 하나로 보고 있는 주산에서의 개장(開帳)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청룡은 수락산의 맥, 백호는 도봉산, 삼각산의 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백호는 주산과 이어진 본신(本身)이지만 청룡은 외산(外山)이 되어 장풍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청룡과 백호는 그 맥은 분명하지만 환포(環抱)하지 못하고 벌려져 있어 수구가 관쇄(關鎖)되지 못하고 있다. 내수(內水)인 중랑천은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면서 직수(直水)로 흐르고 있으며 외수(外水)인 한강은 광진구 일대는 환포하지만 서울숲 일대는 환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서울숲을 중심으로 한 풍수적 판단은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서울숲은 반궁수(反弓水)에 입지하고 있다. <그림1>에서 보듯이 서울숲이 위치한 지역은 한강의 물길이 서울숲을 향해 북서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들어왔다가 남서방향으로 급히 꺾이면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모양은 풍수의 물 흐름으로 볼 때 반궁수에 해당한다. 궁수(弓水)는 물길의 흐름을 해당지역을 둥글게 감싸안으면서 흘러가는 것인 반면, 반궁수는 물길이 찌르듯이 치고 들어오는 모양이다. 따라서 압구정동이나 이촌동은 궁수에 해당하는 반면, 서울숲 지역은 반궁수에 해당한다. 풍수이론에서는 궁수에 입지하는 것은 길(吉)한 반면, 반궁수에 입지하는 것은 흉(凶)한 것으로 본다.

『청오경(靑烏經)』에서는 “산이 모여 쌓이고 물이 감돌아 들면(궁수)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산이 달려나가고 물이 세차게 흐르면(반궁수) 남의 종자가 되어 생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sup>37)</sup> 『명산론(明山論)』에서는 “물길은 굽이치며 어지럽지 않아야 하는데 물길이 활처럼 휘어지

면 기가 멈춘다”<sup>38)</sup>고 하여 물이 혈장을 환포(環抱)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감룡경』에서는 “무릇 평지에 이르러서는 용의 종적을 묻지 말고, 다만 물이 감싸고 두르듯 에워싸면 진룡(眞龍)이다”<sup>39)</sup>라고 하여 평지의 경우 득수가 더욱 중요하며 물의 조건 역시 혈장을 두르듯 환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인자수지(人子須知)』에서도 “혈에서 보면 곧장 찌르지(直衝) 않고 기울지도 않고 높고 급하지(峻急) 않고 소용돌이치며 부딪치지(湍激) 않고 배반(背反)하지 않고 쏘고 끌고 깎이고 뚫리지도 아니하며 유정(有情)하게 혈을 돌아보는 듯(顧穴)하고 동려안아야(纏抱) 한다”<sup>40)</sup>고 하였다. 실학자 이중환의 저서인 『택리지』에서도 “흘러드는 물은 반드시 산맥의 좌향과 음양이치에 합치되어야 한다. 또 구불구불하게 길고 멀게 들어올 것이고 일직선으로 활을 쏘는 듯한 곳은 좋지 못하다”<sup>41)</sup>라고 하여 기존 풍수이론과 동일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풍수에서 반궁수는 지형학적으로 볼 때 하천의 공격사면(攻擊斜面, cut-bank)에 해당한다. 하천이 곡류하면 유수는 관성에 의해 외측으로 흐르게 되어 굴곡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이때 하천이 강기슭에 부딪쳐서 깎여지는 부분을 공격사면, 반대쪽을 퇴적사면(堆積斜面, point bar), 활주사면(滑走斜面)이라고 한다. 최심하상선(最深河床線)에 면한 하안은 하천의 공격사면으로서 침식을 받아 후퇴하며, 그 맞은편의 하안은 모래, 자갈 등이 퇴적사면을 형성하는데<sup>42)</sup> 뚝섬일대가 홍수에 취약한 이유는 지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천의 공격사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뚝섬 일대는 한강이 북서류하다가 남서향하는 곳에 북안에서 유입하는 한강과 청계천의 합류점 근처에 형성된 범람원으로 홍수시 침수지역을 이루고 있다. 범람원은 하천 하류 특히 본류와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발달한다. 따라서 서울숲 일대는 한강의 공격사면, 즉 반궁수의 중간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풍수이론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수에도 취약한 지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37) 「山頓水曲 子孫千億 山走水直 從人寄食」, 최창조 역주, 앞의 책, 23쪽.  
 38) 「水不亂灣 灣則其氣止」, 김두규 역해, 『명산론』(비봉출판사, 2002), 55쪽.  
 39) 「凡到平地莫問踪. 只觀環遶是真龍」, 『撼龍經』, 四庫全書本.  
 40) 김동규 역, 『人子須知』(명문당, 1992), 823쪽.  
 41) 이중환 저, 이익성 역, 『택리지』(을유문화사, 1993), 124쪽.  
 42) 권혁재, 『지형학』(법문사, 1980), 88-89쪽.

둘째, 서울숲은 서울의 동북부지역의 수구로 판단할 수 있다. 수구란 국내의 두 물이 하나로 합쳐져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수구의 명칭은 청룡과 백호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다는 설과 내룡(來龍)의 입수(入首)가 용호(龍虎)간에 입을 내밀고 있다는 설이 있다.<sup>43)</sup> 이는 청룡을 양, 백호를 음으로 보아 청룡의 양수(陽水)와 백호의 음수(陰水)가 수구에서 서로 조화되는 것으로 음양의 충화(沖和)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서울숲 지역이 서울의 수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수구란 국내(局內)의 명당수가 합쳐 밖으로 흘러나가는 곳을 의미한다. 그런데 음·양택보다 넓은 국면인 양기풍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울숲 지역은 중랑천의 하류로서 청계천, 도봉천, 우이천을 포함한 22개의 하천이 합류<sup>44)</sup>하여 한강에 합류하는 마지막 지역이다. 그리고 성종 3년에 병조에서 아차산(峨嵯山)의 벌채 금지를 청한 기록에서 “아차산은 곧 국도(國都)를 비호하는 땅이고, 강무장(講武場)이 되니, 청컨대 경작을 금하고 벌채를 금하소서”<sup>45)</sup>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한양의 범주가 성 바깥 10리까지인 ‘성저십리(城底十里)’를 관할구역으로 하였는데, 아차산은 현재 성동구 광장동에 위치한 산으로 이를 한양의 범주까지 포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창조는 서울의 청계천, 정릉천, 중랑천 물들이 모두 모여 금호동과 성수동 사이 용비교를 종점으로 하여 서울의 손님물(客水)인 한강에 유입된다<sup>46)</sup>고 하여 이 일대가 서울의 최종적 수구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울숲 지역은 중랑천이 객수인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마지막 지점이므로 양기풍수로 볼 때 서울 동북부 지역의 최종 수구를 중랑천과 한강이 합류하는 뚝섬 일대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풍수에서 수구를 중요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땅의 귀천, 역량의 대소가 모두 수구와 관련이 있으며, 수구가 벌어져 있으면 벌어진 공간을 통해 바람이 드나들어 기(氣)가 흩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청룡백호로 교쇄(交鎖)된 것을 이상으로 여긴다.<sup>47)</sup> 그리고 『명산론』에서는 “물이 흘러오는 천문(天門)은 반드시 넓게 열려져 있어야 하며, 물이 나가는 수구(地戶)는

43)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서해문집, 1990), 279쪽.

44) 건설교통부, 『한국하천일람』(2004).

45) 『成宗實錄』 3년(1472년) 3월 10일.

46) 최창조, 『한국의 풍수지리』(민음사, 1993), 80쪽.

47) 김두규, 앞의 책, 289쪽.

반드시 조여 있어야 한다”<sup>48)</sup>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의룡경』에서는 대지를 찾고자 한다면 빗장 걸어놓은 듯한 곳에서 찾아야 하며, 빗장을 거는 것은 크고 작은 수구산이다<sup>49)</sup>라고 하여 수구산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먼저 수구를 보고 다음에 형세를 본다”고 하였으며 좋은 수구의 조건으로서는 “반드시 수구가 꼭 닫힌 듯하고, 그 안에 들이 펼쳐진 곳을 눈여겨보아서 구할 것이다”<sup>50)</sup>라고 하여 입지 선정에 수구를 살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서울숲 일대를 수구로 본다면 풍수의 고전적 이론에서 의미하는 수구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즉 풍수이론은 수구는 주밀하게 닫혀야 하며, 좁아야 하며, 조여 있어야 하며, 빗장 걸어둔 듯하며, 관쇄(關鎖)되는 것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본다. 그러나 서울숲 일대의 수구는 청룡과 백호로 환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구가 별려져 있어 풍수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IV. 풍수비보로 본 ‘서울숲’

앞서 서울숲 일대는 풍수에서의 이상적인 입지는 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다.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경우 이상적인 풍수구조를 가지지 못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비보를 통해 풍수적 개선을 해왔다. 즉 반궁수에

그림2-공격사면에 위치한 비보숲의 사례



전주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872년 지방지도』



밀양

48) 「天門必開 地戶必閉」, 김두규 역해, 앞의 책, 196쪽.

49) 「要尋大地尋關局關局大小水口山」, 『疑龍經』 上篇, 四庫全書本.

50) 이중환 저, 이익성 역, 앞의 책, 지리조.

입지할 경우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해방지를 위한 비보숲을 조성하였고, 수구가 벌려져 있을 경우 수구사로서 비보숲을 조성하였으며 한쪽 면이 허결(虛缺)할 경우 조산(造山)을 만들고 나무를 식재하여 조산숲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의 도시계획학적 입장에서 조성된 서울숲은 이 일대의 풍수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비보숲으로서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서울숲은 비보숲의 기능에서 수해방지숲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 지방도시와 마을에 적용된 수해방지숲을 살펴보면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의 비보숲은 현재 한벽교와 전주교 사이의 버드나무숲을 의미하는데 김두규·정기호에 의하면 상류의 물이 한벽교와 전주향교 일대를 거의 90도 각도로 치고 들어오는 형세(즉 물길의 공격사면)가 된다. 따라서 큰물이 지면 오목대 아래 지대의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독을 쌓고 버드나무를 심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는데<sup>51)</sup> 구체적으로는 비보숲의 기능 중 수해방지숲의 기능을 하게 된다. 밀양지역의 경우도 인공적으로 가꾼 임수(林藪)가 보존되고 있었는데 비보수로서 울림(栗林)과 장림(長林)이 대표적이다.<sup>52)</sup> 장림은 밀양강의 공격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밀양강의 범람을 막기 위한 현실적 기능도 아울러 지녀 수해방지숲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한강은 그 동안 크고 작은 홍수가 발생하였지만 을축년(1925년)의 홍수가 대표적이었는데 뚝섬, 마포, 영등포 등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sup>53)</sup> 서울숲 지역이 과거에 홍수에 취약했던 이유는 지형학적으로는 한강의 공격사면이 되며, 풍수적으로는 반궁수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일대는 한강이 북서류하다가 남서향하는 곳에 북안에서 유입하는 한강과 중랑천의 합류점 근처에 형성된 범람원으로 홍수시 침수지역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서울숲은 한강의 공격사면, 풍수적으로는 반궁수에 입지함으로써 수해방지숲의 기능을 하게 된다.

둘째, 이 지역은 한강을 따라 들어오는 강한 바람을 맞게 되어 풍수에서 말하는 장풍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우리나라 각 지역의 하천에 위치한

51) 김두규·정기호, 앞의 논문, 23쪽.

52) 밀양문화원(<http://miryang.kccf.or.kr>).

53) 서울특별시, 『서울육백년사』(<http://seoul600.visitseoul.net>).



전통숲은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식생하여 비보숲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천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서울숲은 강을 따라 흘러드는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장풍보호숲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그림3-조산숲의 사례



남원의 조산숲  
자료: 네이버 위성지도



서산 해미의 조산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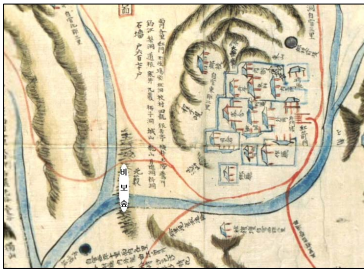
셋째, 서울숲은 인위적인 숲이기 때문에 조산숲이 되는데, 기능적으로는 입지 내부의 생기가 외부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숲의 기능을 하게 된다. 대체로 전통입지에서 조산은 마을에서 볼 때 허결한 방위가 있을 경우 인위적인 산, 즉 상징적인 산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나지막한 언덕을 보존하기 위해 인위적인 숲을 조성하는 것을 조산숲이라고 한다.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원은 동, 북, 남쪽의 삼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남서쪽이 열려 있어 허결하다. 이러한 허결한 기운을 막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언덕을 만들고 여기에 숲을 조성하여 조산으로서의 비보숲을 조성하였다. 서산의 해미도 마찬가지로 해미읍성 뒤쪽과 좌, 우에는 산이 있으나 앞은 평야가 되어 비어 있는 모양이 된다. 이에 따라 읍성 앞에 인위적인 숲, 즉 조산숲을 조성하여 안산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조산숲이란 풍수 사신사 구조에서 한쪽이 허결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성됨을 알 수 있으며 현재도 조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1>에서 보듯이 서울숲 일대의 풍수구조에서 주산, 청룡, 백호는 존재하지만 안산(案山) 또는 주작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주작을 물(水)로서 대체하기도 하지만, 안산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외부공간과의 위요(圍繞)되지 않아 공간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전통적인 풍수비보는 인위적인 산(造山)을

설치하고 숲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보편적인데 서울숲은 이 지역에서 가장 허결한 남쪽에 인공적인 숲을 조성하여 허결함을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산숲으로서 보허숲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 서울숲은 수구막이 숲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풍수 고전에서는 수구의 조건은 벌어지지 않고 꼭 조여 있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수구의 기본적인 조건은 좁은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즉 수구로 빠져나가는 것은 물뿐만 아니라 바람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은 빠져나가더라도 바람은 빠져나가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수구가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지세에서는 물이 산을 감싸고 돌아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직접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구막이로서의 숲의 조성이나 조산을 설치하는 것이 전통적인 비보책이다.

전통마을의 경우 <그림4>에서 보듯이 청안현(淸安縣)은 지금의 충북 괴산군 청안면, 증평읍, 도안면 일대이다. 읍치의 남서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수구사가 존재하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수구막이숲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낙안은 현재 순천에 소재하고 있는데 고을의 진산은 읍성 북쪽의 금전산(金錢山)이다. 읍치에는 방어적 성격의 읍성이 축조되어 있는데 둘레가 1,592척, 높이가 8척이다. 남문 쪽에는 임수(林藪)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에 위치함으로써 수구막이숲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림4-수구막이숲의 사례



청안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872년 지방지도』

<그림5>의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숲 건너편에 위치한 응봉산은 풍수적으로 볼 때 수구사(水口砂)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구사란 물이

흘러가는 곳의 양안(兩岸)의 산을 말하는데 입지내의 생기의 누설을 막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수구사는 반드시 주밀하고 뺨뺨하게 겹쳐져(稠疊) 서로 교차하듯 관쇄(關鎖)하고 좁게 막혀야 한다.<sup>54)</sup> 수구사는 구체적으로 화표(華表), 한문(捍門), 북신(北辰), 나성(羅星) 등으로 불린다. 이 중 한문은 수구사이에 두 산이 서로 마주보면서 문을 지키듯이 보호하듯 막아주고(護捍)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림4>의 청안은 비보숲을 강 양쪽에 조성함으로써 수구막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낙안의 경우는 남서쪽에는 수구막이 산이 있으나, 동남쪽에는 허결하다. 따라서 동남쪽에 비보숲을 조성함으로써 수구막이숲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랑천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응봉산은 수구의 한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반대쪽에는 아무런 사(沙)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비보책으로서의 조산을 만들거나 비보숲을 만들어 수구를 관쇄시킴으로써 입지내의 생기가 누설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전통적 비보책이다. 따라서 서울숲은 응봉산과 아울러 수구를 주밀하게 함으로써 수구막이숲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5-서울숲의 위치와 수구막이



<A> 응봉산의 위치  
자료: 성동구청(<http://www.sd.go.kr>)



<B> 수구막이로서 응봉산  
자료: 필자

그리고 임혜진·유승훈·곽승준(2006)<sup>55)</sup>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숲 조성의 경제적 순편익은 약 168억 원에서 19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상영·김민희·목정훈(2006)<sup>56)</sup>은 서울숲 조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54) 김동규역, 앞의 책, 682쪽.  
55) 임혜진·유승훈·곽승준, 「서울시 서울숲 조성의 경제적 편익 추정」, 『지역연구』 22권 2호(한국지역학회, 2006).  
56) 신상영·김민희·목정훈, 「서울숲 조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7권 4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서울숲 조성으로 인한 가격영향력이 과거보다 커졌음을 확인하였고, 서울숲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영향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서울숲 조성이 인근주민의 효용의 증대와 아울러 인근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풍수비보숲이 부동산학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 V. 결론 및 시사점

2005년 개원한 서울숲은 풍수적 관점에서 조성된 것은 아니지만 비보숲의 관점에서 볼 때 수해방지숲의 기능과 아울러 장풍보호숲, 조산숲, 수구막이숲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논의는 신도시 개발이나 건설, 주택단지 조성 등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허결한 도시의 입구지역이나 주위의 산들이 개발로 인해 끊어져 풍수의 사신사(四神砂)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역, 또한 산의 맥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한 지역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규모 또는 소규모의 숲을 조성한다면 거주민의 휴양기능이라는 도시생태학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지맥의 보호와 허결한 부분의 보완이라는 풍수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숲의 조성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은 현대의 도시조경학적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둘째, 주거단지 건설에 있어서 특정 주거단지의 진입로의 허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비보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최근 아파트 단지 건설에 있어 진입로 입구에 노거수를 식재한다든가, 숲을 조성하여 주거민들의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사례 등은 풍수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도시나 주거단지의 마지막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 부분에 숲을 조성할 경우 수구막이숲의 기능뿐만 아니라 장풍기능, 휴양기능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면 인위적인 조산의 기능까지 할 수 있을 것이며, 비보숲의 특징 중 하나인 주거공간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비보숲의 기능 중 하나가 외부의 좋지 않은 기운을 차단하는 흉상차폐의 기능도 중요하다고 볼 때, 특정 주거지의 주위에 문제가 있는 산 또는 건물, 즉 풍수에서 말하는 화기(火氣), 충(沖) 등이 있을 경우 나무나 숲을 조성하여 이를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비보숲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향후 풍수 비보숲에 대한 기후학적, 대기과학적, 지형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학적, 도시조경학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 비보숲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진행된다면 풍수의 현대화와 실지(實地) 적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서는 서울숲이 조성되기 이전과 이후 이 지역의 풍량, 풍속, 온도, 기후적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비보숲이 가지는 환경생태학적 의미를 규명하지 못한 점이다. 그리고 풍수적 관점에서 조성된 숲이 아닌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조성된 숲을 풍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조성된 숲을 귀납적 방법으로 해석하여 현대의 주거입지와 신도시개발, 도시계획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 것은 풍수 비보숲에 대한 현대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 『한국하천일람』. 2004.
- 김동규역, 『人子須知』. 명문당, 1992.
- 김두규 역해, 『명산론』. 비봉출판사, 2002.
- 김두규, 『풍수학대사전』. 비봉출판사, 2005.
- 김두규·정기호, 「후백제 도읍지 전주의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권 3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04, 15-25쪽.
- 김의숙, 「비보풍수연구」. 『강원민속학』 17집, 강원도민속학회, 2003, 103-144쪽.
- 김학범·장동수·박복조, 「전통 마을숲 복원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권 2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08, 42-50쪽.
- 김학범·장동수, 『마을숲』. 열화당, 1994.
- 김현옥·김두규·김용기,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한양의 비보풍수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0권 3호, 한국정원학회, 2002, 68-77쪽.
- 권선정, 「비보풍수와 민간신앙 - 금산의 돌탑 경관을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37권 4호, 한국지리학회, 2003, 427-441쪽.
- 권혁재, 『지형학』. 범문사, 1980.
- 남연화·윤영할, 「전통 마을숲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원학회지』 17권 1호, 한국정원학회, 1999, 1-27쪽.
- 박봉우, 「마을숲과 문화」. 『한국학논집』 33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195-232쪽.
- 박재철, 「진안지역 마을 숲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5권 1호, 한국농촌계획학회, 1999, 56-65쪽.
- 박재철·김병섭·윤성미·박선미, 「마을숲 복원에 관한 연구 - 전북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능길마을을 사례로」. 『농촌계획』 10권 3호, 한국농촌계획학회, 2004, 27-32쪽.
- 서울대학교 규장각, 『대동방여전도』.
- 서울대학교 규장각, 『1872년 지방지도』.
- 서윤길, 「도선비보사상의 연원」. 『도선국사』, 불교영상, 1997.
- 신상영·김민희·목정훈, 「서울숲 조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7권 4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1-17쪽.
- 송화섭, 「마을숲의 역사와 상징 - 수구막이숲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권 2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08, 89-97쪽.
- 송화섭, 「풍수비보입석과 불교신앙 - 순창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17집, 한국사상사학회, 2001, 206-248쪽.
- 우정규, 「귀납논리의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 『철학연구』 13권 1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1989. 132-152쪽.

- 이중환 저,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1992.
- 임재해, 『안동하회마을』. 대원사, 1992.
- 임혜진·유승훈·곽승준, 「서울시 서울숲 조성의 경제적 편익 추정」. 『지역연구』 22권 2호, 한국지역학회, 2006, 225-250쪽.
- 장동수, 「풍수지리적 배경의 전통숲 조성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제3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49-80쪽.
- 장병관·황보철, 「웃골마을 비보경관의 환경생태적 의미」. 『한국조경학회지』 36권 2호, 한국조경학회, 2008, 32-41쪽.
- 진안군, 『진안 마을숲 복원 매뉴얼』. 2005.
- 충북발전연구원, 『충북지역 마을숲 관리 실태와 활용방안』. 2008.
- 최원석, 「한국의 비보풍수론」. 『대한지리학회지』 37권 2호, 대한지리학회, 2002, 161-176쪽.
- 최원석, 「한국의 비보풍수에 관한 시론」. 『탐라문화』 22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2, 211-244쪽.
- 최재용·김동엽, 「마을숲 문화가 있는 농촌 마을숲의 구조 및 보전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권 3호, 한국정원학회, 2000, 51-64쪽.
-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0.
- 최창조, 『한국의 자생풍수』. 민음사, 1997.
- 최창조 역주,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1992.
- 최창조, 『한국의 풍수지리』. 민음사, 1993.
- 한기문, 「고려시대 비보사지의 성립과 운용」. 『한국중세사연구』 21호, 한국중세사학회, 2006, 255-292쪽.
- 홍금수, 「전관평의 경관변화」. 『문화역사지리』 18권 1호, 문화역사지리학회, 2006, 102-134쪽.

『撼龍經』. 四庫全書本.

『高麗史』

『高麗史節要』

『세종실록지리지』. 京都漢城府.

『疑龍經』. 四庫全書本.

네이버 위성지도

밀양문화원(<http://miryang.kccf.or.kr>)

서울숲(<http://parks.seoul.go.kr/seoulforest>)

서울특별시 서울육백년사(<http://seoul600.visitseoul.net>)

성동구청(<http://www.sd.go.kr>)

『朝鮮王朝實錄』(<http://sillok.history.go.kr>)

하동구청(<http://www.hadong.go.kr>)

Jang, Dong-Su, "Feng Shui Meanings and Roles of Korean Traditional Urban Forest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003, pp. 43-50.

Yoon, Hong-Key, "Geomantic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 Korea". *Asian Folklore and Social Life Monographs*, No. 88, 1976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현대의 도시계획학적 관점에서 조성된 숲이 풍수의 비보숲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을 대상으로 이 일대의 풍수적 구조를 파악하고 '서울숲'이 풍수비보숲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통해 현대의 도시학, 조경학, 부동산학 등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풍수는 장풍득수가 온전한 생기가 충만한 땅을 얻기 위한 상지기술이다. 그러나 이러한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허결한 땅을 보완하거나 강한 기운을 눌러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풍수비보의 특징이다. 풍수비보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전통도시나 마을에 적용되고 있으며 비보의 형태는 주로 사찰, 탑, 연못, 숲, 조산(造山) 등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사찰과 탑이 국역풍수나 왕실의 비보형태로 나타났으며, 조선시대에는 연못, 숲, 조산 등의 비보형태가 나타났다. 이 중 숲이나 조산의 비보는 적은 비용으로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자연에 대한 훼손이 적었기 때문에 중소도시나 마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서울숲'은 풍수적인 입장에서 조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 일대의 풍수적인 결점을 보완하는 비보숲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장풍보허숲의 기능, 수해방지숲의 기능, 조산숲의 기능, 수구막이숲의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개발이나 재개발, 주거단지의 입지 등에 있어 풍수적으로 결점이 있는 지역이나, 허결한 지역, 맥이 끊어진 지역 등에 비보숲을 조성하여 근린공원화 한다면 생태학적, 조경학적 측면에서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휴양기능과 아울러 풍수적으로 볼 때 지맥의 보호 및 생기 보존, 허결한 부분의 방위 보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09. 4. 9.

**수정일** 2009. 12. 2.

**게재 확정일** 2009. 12. 9.

**주제어(keyword)** 풍수(feng-shui), 비보(Bibo), 수구(Sugu), 서울숲(Seoul forest), 전통숲(tradition forest)